

1 동정

▶ **정희호** 성도GL/성도솔루원의 고객부문 대표가 최근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 화촉

▶ **김용성** 광성인쇄사 사장의 장녀 경희양이 지난 1월 29일 서울성락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 **김종철** 신정프린테크(주) 대표이사의 아들 창수군이 지난 2월 19일 화성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 **이기현** 심우토탈 대표의 장녀 해민양이 지난 2월 20일 서울말레스호텔에서 화촉을 밝혔다.

3 부음

▶ **박경재** 일진페이퍼/일진PMS(주) 대표이사의 모친이 지난 1월 31일 별세했다.

▶ **백중희** 세진종합미술 대표의 모친이 지난 1월 23일 별세했다.

▶ **정복진** (주)수정당인쇄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7일 별세했다.

▶ **김영우** 원일프린팅 대표의 모친이 지난 2월 6일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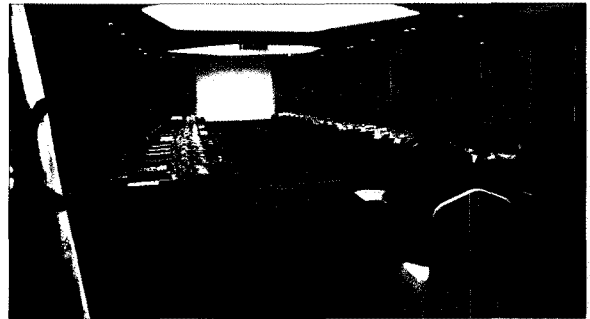
▶ **홍사룡** 한영문화사 대표의 빙부가 지난 2월 9일 별세했다.

▶ **김용환** 유연상사 대표의 모친이 지난 2월 14일 별세했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이사회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 제13회 이사회가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 호텔PJ에서 개최돼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승인, 잉여금 처분안, 2011년 사업보고 및 수지예산안,



정관개정안(장학사업을 위한 개정안) 등 상정 의안들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의안심의에 앞서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에서 “총회가 끝나면 평범한 인쇄인으로 돌아가며 그동안 성원해 주신 부회장님과 이사님, 감사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은 “지난 2006년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할 때 우리 업계내부의 반대에 부딪쳐 힘들었던 일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로써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서 “그러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은 제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인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과’가 만들어 지고, 인쇄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지역에서 인쇄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국고지원을 받아 인쇄수출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서체개발과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국내외 열다섯 곳에서 직지 및 인쇄문화전시회를 개최하고, 인쇄강령 및 직지와 인쇄의 슬로건을 제정 보급하고, 각종 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등 인쇄의 미래 비전을 일구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전개했던 일들은 제 가슴에 큰 보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합 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2월 8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4년간 고생해주신 이사님들과 아직 임기가 남으셨지만, 두 분의 감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의 조합 살림이 어려워 여러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만큼 예산(안) 등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 2010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 승인 결의안, 2010년도 잉여금 처분안 승인 결의안 등은 원안대로 상정키로 하는 한편 2011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중 수출진흥비를 증액하고 당일로 경영자세미나를 개최하는 수정된 내용으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서울조합, 사업 및 재정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의 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 이광옥)와 사업분과위원회(위원장 김건국)는 지난 1월 27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광옥 재정분과위원장은

은 인사말을 통해 “조합의 살림이 많이 어려워진 만큼 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건국 사업분과위원장은 “조합에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터넷쇼핑물사업(B2B전자상거래), 지도교육정보사업, 기능인력양성사업, 수출진흥사업, 홍보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2011년 수지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조합, 기능인력양성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의 기능인력양성위원회(위원장 이순석)는 지난 1월 20일 조합회의실에서 ‘2010년도 사업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순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이론과 실기를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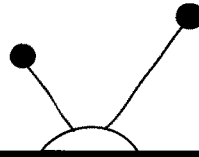
사업보고를 통해 지난해 실시되었던 중소기업 청년인턴십사업은 총 모집인원 100개 업체(141명) 중 62개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10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추진하기로 했다.

4 이전

- ▶ (주)한성칼라(대표이사 배명수)가 최근 사업장을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93으로 이전했다.
- ▶ 삼성아이앤비(주)(대표이사 방윤덕)는 최근 사업장을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176번지 202호로 이전했다.
- ▶ KMP(대표 이희형)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3가 28-15 태광빌딩 301호로 이전했다.
- ▶ 광동문화사(대표 김영배)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을지로4가 300-2로 이전했다.
- ▶ 애드뱅크(대표 연제권)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필동2가 84-31 범이빌딩 3층으로 이전했다.
- ▶ 범진문화인쇄(대표범진문화인쇄대표 조을기)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4가 36-40으로 이전했다.
- ▶ (주)보성파인씨(대표이사 최창용)는 최근 사업장을 중구 초동 42 아시아미디어타워 909호로 이전했다.
- ▶ 글월기획(대표 홍현문)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4가 85-2로 이전했다.

5 변경

- ▶ (주)모아인쇄(대표이사 안규상)는 최근 업체명을 (주)모아홀딩스로 변경했다.
- ▶ 이에이피(주)(대표이사 이영호)는 최근 업체명을 (주)동인에이피로 변경했다.
- ▶ 협진마스터(대표 임환선)는 최근 업체명을 협진디지털인쇄로 변경했다.
- ▶ 산성문화인쇄(대표 이종철)는 최근 업체명을 (주)산성토탈프린팅으로 변경했다.
- ▶ (주)드림이노플래너스의 대표자가 최근 남기순씨로 변경됐다.
- ▶ (주)동서문화의 대표자가 최근 김봉희씨로 변경됐다.



‘직지’ 및 인쇄문화홍보전시회 국내외 11곳서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올 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 청주시의 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으로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직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 전시 홍보에 나섰다.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직지와 함께하는 옛 인쇄문화’ 기획특별전 상설 전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전국 단위 행사와 지역 우수축제 행사장 8곳을 순회할 예정이다. 해외 홍보 전시는 중국 국제인쇄기술전시회 등 3개국에서 직지 영인본과 금속활자판 전시,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협회는 행사장 내에 ‘직지홍보관’을 마련해 자원봉사자가 현지에 상주하며 직지 영인본(하권), 복원본(상권)과 금속활자판, 한글과 영어 2개 국어로 제작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설명 패널, 세계인쇄문화연표, 직지 금속활자본 제작과정 사진 패널 등을 전시할 방침이다.

또 직지 금속활자판 인쇄체험을 실시해 관람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지홍보 책자와 홍보영상물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주 혁신도시 전략산업으로 인쇄출판업 등 선정

제주도는 서귀포시 서호동에 조성되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으로 교육·연수, 관광, 인쇄출판업 등을 선정, 집중 육성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혁신도시의 전략산업 선정은 도와 정부, 이전대상 공공기관 노동조합, 사업시행자가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도는 내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및 산업용지 등에 대한 매각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전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항공료를 할인해주기 위해 하반기에 정부 및 이전기관, 항

공사간에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임차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등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지구내 기반시설비 600억원,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비 76억원, 산업용지 매입 임대용지 전환(15만4000㎡) 690억원, 임차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28억원, 혁신도시 제2연계도로(산록도로~혁신도시) 개설사업비 87억원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교육청은 학교중설과 부지 추가확보 등에 대한 재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문화부, 지역신문발전에 총 380억원 지원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38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신문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원칙이 적용되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저널리즘 분야를 강화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최창섭),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이성준)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방향 및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사계획, 201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지역신문발전 지원계획 수립은 지난 해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의 존속시한이 2010년 9월에서 2016년 12월까지로 6년 연장되고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번 계획은 신문위기기록 대토론회(2010년 6월),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계획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역일간지 29개 사, 지역주간지 62개 사에 74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 콘텐츠 품질 제고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번 지원계획은 그간의 지원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 ‘뉴미디어 사업 강화’, ‘대응기금(매칭펀드)방식 도입’, ‘사업 평가의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지원방향을 설정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1~2013)’은 ▲저널리즘 강화(142억원), ▲뉴미디어 기

반 구축(107억원), ▲공익성 활동 강화(131억원) 등 3대 추진 전략과 16개의 중점과제로 이루어져 있고, 3년간 총 3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세장벽 대신 기술규제 높아졌다

다자간 무역협정과 지역무역협정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졌지만, 무역기술장벽(TBT)은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무역 수단으로 떠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세계 무역기구(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817건으로, 2005년의 894건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가별로는 미국 187건, 우간다·이스라엘 각 144건, 사우디아라비아 90건, 브라질 86건, 유럽연합(EU) 82건, 케냐 67건, 카타르 66건, 중국·바레인 각 64건, 한국 47건 등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보문 중에서 단순한 국제표준 문제 등은 기술장벽이라고 볼 수 없고, 무역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판단되면 통보국 이외의 회원국들이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해 연간 3회 개최되는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보고서는 1995년 WTO 출범 이후 2010년 10월 말까지 15년간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은 271건이며, 이 가운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이 6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60건의 특정무역현안을 나라별로 분석했을 때 EU(12건), 중국(8건), 미국(7건) 순으로 기술규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고인쇄박물관 무료 관람 추진

청주고인쇄박물관(관장 정준영)이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알리고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관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은 이르면 올 상반기중 관람 무료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국립박물관의 전면 무료화 추세에 맞춰 고인쇄박물관도 무료화를 추진해 직지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인쇄박물관은 무료화

추진방안 계획이 수립되면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하면 시장 결재와 시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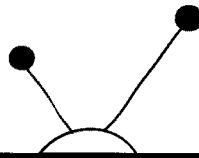
현재 고인쇄박물관의 관람료는 연평균 2300여 만원이며, 성인 800원(20인 이상 단체600원), 어린이 600원(단체400원), 어린이 400원(단체무료), 6세이하 65세 이상은 무료 관람이 실시되고 있다.

고인쇄박물관 관계자는 "현재 무료 관람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단계"라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무료화가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이어 "국립박물관은 무료화가 추진되고 있는 반면 고인쇄박물관처럼 시에서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은 무료화를 추진하는 곳이 전국에 2곳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한국공예관, 수강생 모집



청주시한국공예관(관장 김동관)은 2011년도 시민 공예디자인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키로 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강좌는 규방, 도자, 염색, 한지과정과 시민도슨트과정인 문화예술경영 등 6개 분야 17강좌이다. 각 분야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되는 시민공예디자인 아카데미는 3월 15일부터 20주 동안 전문 작가의 실습위주 지도로 열린다. 각 과정에서는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공예품을 제작하는 한편 단계별 학습프로그램 편성으로 수준 높은 공예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자공예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반도 개설 운영한다.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시민 공예디자인 아카데미 과정은 수료 후 자발적인 동아리 학습활동을 통해 다양한 창작활동과 봉사활동, 체험활동, 문화상품개발 등을 펼치고 있다. 개강식은 3월 15일 열린다.



마이스터고에 '취업계약제' 도입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가 도입되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계약 입학제를 시행한다. 마이스터고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 재학생에게 산업현장 교육을 하고 졸업 후에는 취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수당을 받는 취업인턴제도 시행된다.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도 대상이며 내년까지 일부 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취업계약 입학제와 취업인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됐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청년채용시 1500만원보다 500만원 인상된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태도 3년간 우대 혜택

고용노동부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때 대규모 기업보다 중소 규모 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은 300명 이하, 그 외의 산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100명 이하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이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까지 우선지원 대상 사업장이었지만 근로자수가 늘어 올해부터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신고 등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전화 : 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출판협회, 뉴스레터 제공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최태경)는 지난 2월 1일부터 KEPA 전자책 뉴스레터 제공을 시작했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는 2004년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면세를 위한 인증을 시작한 이래, 2008년 11월 전자출판공동제작센터, 전자출판교육센터를 오픈하면서부터 연인원 3천명, 1천여개 기업의 방문을 통해 전자책 산업과 문화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시켜 왔다.

한국전자출판협회 관계자는 "정보를 갈망하는 출판사, 디지털콘텐츠업체, 언론사, 1인 창업자 등이 2010년을 기점을 대거 늘어나면서 기존의 메일과 팩스 등의 방식으로는 방대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 물론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간결하고 명쾌한 소셜커뮤니티가 있지만, 전자책에 관한 방대한 정보는 40자 소통으로 한계가 있어, 오픈화된 뉴스레터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출판협회(KEPA)의 뉴스레터는 2월 한 달간 베타테스트 후에 수정 보완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외규장각도서 이관 관련 정부간 합의문 서명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프랑스로 반출된 지 145년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온다.

박홍신 주프랑스대사와 Paul Jean-Ortiz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은 지난 2월 7일 파리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BNF) 소장 외규장각도서 297권을 금년 5월 31일 이전에 한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정부간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이 이관되는 도서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에 의해 유출되어 1867년 7월 프랑스 황실도서관으로 일괄 이관된 의궤 전체로서 1993년 한국으로 이관된 휘경원원소도감을 포함하여 총 297권이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BNF 소장 외규장각도서를 5.31 이전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 완료 △이관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 △2015-2016년 한·불 상호 문화교류 행사 계기 금번 이관 도서 일부 전시 △5년단위 갱신가능 대여 등이다.

금번 합의문 서명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간 합의의 후속조치이며, 한-불 양측은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국립중앙박물관간 외규장각도서 이관 관련 기술적·행정적 사항에 대한 협의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합의에 따라 외규장각도서가 프랑스로 반출된 지 145년만에, 우리측이 동 문제를 프랑스측에 제기한 지 20년만에 한국으로 반환되는 것이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하이델베르크, 뉴스지 발간

한국하이델베르크(주) (대표이사 김범식)는 2011년 하이델베르크 뉴스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식지에는 지식이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하이델베르크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는 트레이닝 및 세미나를 위한 교육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델베르크 기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쉽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소개하고 있다. 최근 IT 기술 발달을 토대로 보다 나은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웹 투 프린트에 대한 기술적 내용과 함께 해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아울러 경쟁 속에서 두드러져 보이는데 필요한 인쇄 회사 마케팅의 일환으로 브랜드화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파우더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 보다 적은 잉크로 높은 콘트라스트를 얻는 방법 등에 대한 간단한 팁을 제공한다. 매년 발간되는 하이델베르크 뉴스는 한국하이델베르크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02-3140-9166

성도GL/성도솔루션, 신입 직원 문화 나누기 행사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최근 신입 직원들과 함께 성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새로 입사한 직원들에게 성도의 이념과 문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11시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감동을 공유하며 성도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은 다양한 문화경영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문화 체험을 통한 업무능력/개인감성 향상, 사회 문화소외지역의 아동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회사측은 앞으로도 사회 공헌에 힘쓰는 등 업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GL/성도솔루션, 임직원 교육으로 체험 마케팅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2월 8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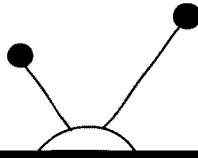
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험 마케팅"이라는 제목으로 기존의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 성도의 현 위치와 시장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성도GL/(주)성도솔루션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여 고객들께 더 나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안테크, 신안제책사에 가습기 KBN-604 공급

신안테크(주) (대표이사 김순호)는 일본 KIDA사에서 종전 제품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가습기 KBN-604를 파주 소재 신안제책사(대표 안영일)에 공급 설치했다





고 밝혔다. 신안제책사는 더욱 품질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본 KIDA사의 가습기인 KBN-604를 설치했다고 전했다. KBN-604 가습기는 저소음과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으로 공장 내부가 건조하여 발생하는 정전기를 억제시켜 작업 효율을 증가시켜 준다. air 사용량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대폭 감소돼 유지 비용은 줄이면서 가습 효율은 증가시켰다. 장점으로 강력한 가습 성능(12ℓ/h/대)과 미세한 입자(평균 5μ)에 대비한 air 소모량(1.2MPa/대)이 적어서 가습기 가동비용 감소와 가습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려한 디자인과 간편한 조작으로 사용자 친화적 환경을 구현했으며 가습기 가동 소음이 적어 쾌적한 작업장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신안제책사 안영일 대표는 “새로운 양장기 도입에 최고의 제품 품질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습기 설치를 결정했으며 정전기 발생과 용지 신축 방지 및 청정한 공장이 구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항상 최고의 제품 품질 구현에 노력하였는데, 더욱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가습기에 대한 비교 평가 끝에 일본 KIDA사 제품이 미려한 디자인과 성능이 우수하여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코닥, 키오프 미팅 열어



한국코닥(대표 이수범) 키오프미팅이 지난 1월, 그랜드힐튼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키오프미팅은 한국코닥의 GCG, CDG, EI의 모든 채널 파트너들과 세일즈팀이 모두 모인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여러분의 잠재력을 펼치세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코닥 이수범 대표이사는 “이번 미팅의 목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코닥 직원들과 채널 파트너들을 통하여 한국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며 “행사에 참여한 채널 파트너분들 뿐만 아니라 코

닥 직원들도 이번 미팅을 통해서 코닥 솔루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자의 비즈니스에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코닥 솔루션을 학습하고 코닥을 통해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와 개인적인 면에서 모두 도움이 되는 시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약 100명의 코닥 임직원 및 채널 파트너들이 참석한 키오프미팅은 external day와 코닥 임직원들만 모여서 진행한 internal day로 진행되었다. External day 오전에는 이스트만 코닥의 COO인 Phil Faraci가 참석하여 이스트만 코닥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하였고, 코닥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기회와 채널 파트너들을 위한 정책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GCG와 CDG 사업분야별로 세션을 갖고 코닥의 새로운 솔루션과 2011년 비즈니스 플랜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 시간에는 만찬과 함께 2010년 채널 파트너들의 성과에 대한 어워드를 시행하여 한해동안 결실을 축하하고 2011년도의 비즈니스에 대한 긍정적인 다짐으로 마무리 했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후지제록스, 애플 iOS용 프린트 및 문서뷰어 앱 출시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2월 16일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쉽고 간편하게 자료를 출력하고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애플 iOS용 프린트 및 문서뷰어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후지제록스

의 프린트 앱인 '프린트 유틸리티'를 이용하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뿐 아니라 내장 카메라로 찍은 사진, 웹페이지, 주소록 등을 컴퓨터와의 연동 없이 바로 출력할 수 있다. 이 앱은 와이파이(무선랜) 환경에서 주변의 출력 가능한 복합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기본적인 출력 기능 외에도 양면 인쇄, 여러 사진을 한 장에 출력하는 N-up 기능, 컬러모드 선택 등 다양한 출력 기능을 제공한다.

황인태 한국후지제록스 영업본부장은 "그 동안 프린팅 업계에서 출시된 앱들은 주로 B2C 대상이었지만, 후지제록스에서 이번에 출시한 앱은 기업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증 등 보안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며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스마트 워크' 업무 시스템 구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기업에 최적화된 후지제록스의 앱들을 활용하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스마트 워크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지제록스의 프린트 앱과 문서뷰어 앱은 애플 iOS가 탑재된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에서 활용 가능하며, 애플 앱스토어에서 'Fuji Xerox', 'Xerox' 등으로 검색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올해 상반기 중 안드로이드용 앱 또한 출시할 예정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8종 발표

니콘이미징코리아(대표 우메바야시 후지오)는 지난 2월 9일 전세계 동시에 광학 36배 줌 렌즈를 탑재한 하이엔드 카메라 COOLPIX P500을 비롯해 2011년 콤팩트 카메라 신제품 8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제품은 COOLPIX P500 이외에도 COOLPIX P300, COOLPIX S9100, COOLPIX S6100, COOLPIX S4100, COOLPIX S3100, COOLPIX S2500, COOLPIX L120 등 모두 8종이다. 고성능을 중시한 P(Performance) 라인업의 하이엔드 카메라 COOLPIX P500은 COOLPIX카메라 중 최고배율인 36배줌 니코르(NIKKOR) 렌즈를 탑재해, 광각 22.5mm부터 최대 810mm상당의 화각



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또한 이면조사형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고감도에서도 노이즈를 억제한 고화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동 노출 모드와 풀HD 동영상 촬영 기능을 지원하며, 틸트식(tilt, 로우 앵글부터 하이 앵글까지 촬영이 가능하도록 액정이 상하로 움직이는 형태) 3형(7.62cm) TFT 액정 모니터를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앵글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COOLPIX P500은 12.1메가 픽셀의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으며, 고감도 ISO 3200을 지원한다. 초당 약 8장의 연사 속도로 연속 촬영을 할 수 있다. 홈페이지_www.nikon-imag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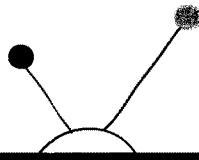
캐논, 2011년 상반기 신제품 16종 발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대표이사 강동환)이 지난 2월 8일 프리미엄 엔트리 DSLR 카메라 'EOS 600D', 엔트리 DSLR 카메라 'EOS 1100D'와 함께 콤팩트 카메라 9종, 렌즈 3종 등 상반기 신제품 16종을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EOS 600D'의 가장 큰 특징은 캐논의 엔트리 DSLR 기종 중 최초로 와이드 3.0형(3:2) 회전형 클리어뷰 LCD(약 104만 도트)를 탑재했다는 것이다. 회전형 클리어뷰 LCD는 로우 앵글이나 하이 앵글과 같은 다양한 구도의 사진을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EOS 600D'는 캐논 DSLR 최초로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가 추가되었다. '장면 인텔리전트 오토' 모드는 노출과 포커스, 화이트밸런스와 밝기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존 전자동 모드에 '픽처스타일 오토'를 추가해 피사체에 맞는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인물을 촬영할 때는 자연스러운 피부색으로 보정을 해주고, 자연이나 야외장면을 촬영할 때는 초록색과 파란색을 보다 선명하게 표현해주는 방식이다.

젊은 소비자층, DSLR을 처음 접하는 초보 입문층을 겨냥한 'EOS 1100D'은 'DSLR은 검정색이다'라는 편견을 깨고 '블랙, 레드, 브라운'의 3가지 컬러로 출시되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만



속시킨다. 또한 무게가 약 500g(배터리, 메모리 포함)에 불과해 휴대성도 높아졌다. 약 1220만 화소를 지원하는 EOS 1100D는 ISO 감도를 100-6,400까지 확장 가능하다. 이는 상위 기종인 EOS 550D, EOS 60D와 같은 수준이다. 홈페이지_ www.canon-ci.co.kr

캐논 EF 렌즈, 누적 생산 6천만대 돌파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대표이사 강동환)은 1987년부터 생산한 캐논 EF 렌즈가 2011년 1월 기준으로 글로벌 누적 생산 대수 6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지난 2월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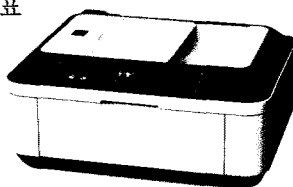
EF 렌즈의 6000만 대 생산은 불과 23년 만에 달성됐다. 첫 생산인 1987년 3월부터 1000만 대 생산까지 8년 5개월, 그 이후 2000만 대 돌파까지 5년 6개월이 걸린 것과는 달리 5000만대에서 6000만 대 생산까지는 단 1년 1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 생산 성장세 또한 빨라지고 있다.

캐논의 EF 렌즈는 일본의 우즈노미야 공장과 오이타 공장, 타이완과 말레이시아 등 4개 공장에서 생산된다. 14mm 초광각부터 800mm 망원까지 총 64종에 이르는 폭넓은 렌즈 라인업이 캐논 EF 렌즈의 큰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캐논은 EF 렌즈 누적 생산 대수 6000만 대 돌파를 기념해 3월 20일까지 EF 렌즈를 구매하면 사은품 3가지를 증정하는 '캐논 렌즈 PLUS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3월 25일까지 캐논 홈페이지에서 정품 등록을 하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응모가 가능하다. 홈페이지_ www.canon-ci.co.kr

캐논코리아, 소호용 복합기 MX366 출시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포토 출력부터 팩스까지 하나로 가능한 SOHO용 팩스 부착형 복합기 MX366을 출시했다. MX366은 컬러 출력은 4.8



IPM이라는 빠른 출력속도를 자랑한다. 출력 해상도도 4800dpi 상당의 고해상도로 사진을 원하는 대로 출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집이나 회사에서 빠르고 편리한 컬러 팩스를 이용해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컬러

팩스, 컬러 복사, 컬러 프린팅, 컬러 스캔까지 가능하다.

효율적인 문서 업무를 위한 필수 장치인 자동원고이송장치(ADF)를 탑재했으며 최대 30매까지 적재 가능한 일체형 ADF를 장착하여 빠르고 신속한 스캔과 복사가 가능하다. 스캔한 PDF 파일에 보안 기능을 추가하여 중요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 관리할 수도 있어 문서의 보안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Full HD 동영상 출력 기능은 캐논 DSLR 카메라로 촬영한 Full HD 동영상을 전용 고화질의 사진으로 출력할 수 있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소호용 컬러 팩스 복합기는 출력량이 그리 많지 않으나 컬러 문서나 고품질의 사진 출력이 필요하고 팩스 업무가 빈번한 소호에 매력적인 제품"이며 "이 제품으로 사무기기 영역뿐만 아니라 홈 오피스에서도 캐논의 뛰어난 품질을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캐논코리아 장애인 직원이 생산한 복합기, 장애재활센터에 증정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대표 김천주)은 공식 블로그에서 진행된 '함께하는 캐논'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직원이 직접 생산한 레이저복합기를 장애인 단체에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희망을 주는 사연을 응모받아 레이저복합기를 증정하는 것으로 이번에 선정된 단체는 장애환자를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는 푸르메재단(대표이사 김성수)이다. 이번 행사에서 증정된 캐논코리아 레이저 복합기 MF4570dn은 개발에서 생산까지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장애인들의 손에 의해 생산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캐논코리아는 전했다. Cell

생산 방식으로 유명한 캐논코리아의 안산공장에는 현재 63명의 청각장애인이 'I Can'이라는 셀에서 근무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지난 2009년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장애인고용확대협약을 체결한 이래 꾸준히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왔으며 법정 의무고용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고용해 장애인고용 우수업체가 되었다. 푸르메재단 관계자는 "그나마 우리 재단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지만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인 기업이나 단체는 이런 기회조차 전혀 없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통해 다른 기업과 단체들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캐논코리아의 관계자는 "증정식 내내 환자, 의료진, 봉사자,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며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계속하여 다른 기업과 단체들에 힘이 되고 싶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HP, 출력비용 최대 50% 절감한 복합기 3종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개인 및 소호(SOHO)사용자들을 위한 출력 솔루션으로 높은 인쇄품질은 유지하면서 타사 잉크젯 대비 최대 50% 출력 비용 절감이 가능한 'HP 포토스마트 잉크 어드밴티지 (Photosmart Ink Advantage), e-복합기 K510a'와 'HP데스크젯 잉크 어드밴티지 (DeskJet Ink Advantage) K010a 프린터' 및 'HP 데스크젯 잉크 어드밴티지 K110a 복합기' 3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제품 3종은 낮은 유지비로 경제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흑백 장당 16.5원 및 컬러 39.6원의 저렴한 장당 출력 비용과 9900원의 초저가 카트리지로 HP 잉크젯 프린터 중에서 가장 경제적인 수준의 문서 출력비용을 제공한다. 특히 'HP 포토스마트

잉크 어드밴티지 e-복합기 K510a'는 경제적인 문서 출력 기능과 함께 e프린트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PC 저장 없이 복합기로 바로 출력물을 전송할 수 있다.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을 총괄하는 임진환 부사장은 "신제품들은 출력품질은 높이고 유지비는 낮춰 경제성을 보다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제공할 것이며 향후 HP는 비용과 자원절약은 기본이고, e프린트와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을 더해 소비자들의 니즈에 선행하는 제품 개발에 꾸준히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엔스퍼트, 태블릿 '아이덴티티탭' 구글 CTS인증 획득

엔스퍼트(대표 이창석)는 자사의 태블릿 '아이덴티티탭'이 구글 CTS(Compatibility Test Suite)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엔스퍼트는 국내 중소 벤처기업이 구글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것은 엔스퍼트가 처음으로 아이덴티티탭의 구글 인증 획득을 계기로 해외시장에 대한 적극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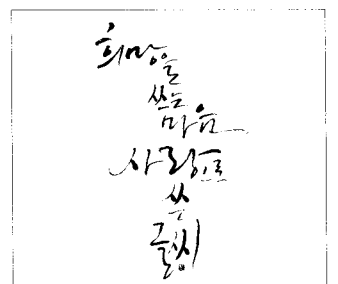
엔스퍼트는 이번 구글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향후 E300 시리즈 등의 아이덴티티 태블릿 후속 모델과,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홈(SoIP) 등 자사의 안드로이드 기반 차세대 미디어 디바이스 전 라인업에 걸쳐 GMS 탑재를 확대하여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베스트바이 등 북미 시장 수출과 함께 해외 시장 공급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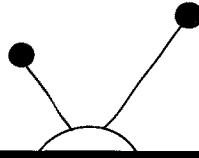
엔스퍼트 이창수 사장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구글 공식 인증을 받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해외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CES 이후 논의 되고 있는 글로벌 IT기업들과의 제품 공급 협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사 100인의 희망메세지전

강병인의 캘리그래피로 만나는 우리시대 명사 100인의 희망메세지전이 오는 3월 6일까지 두성종이 인더페이퍼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희망메세지전은 각 분야 명사 100인의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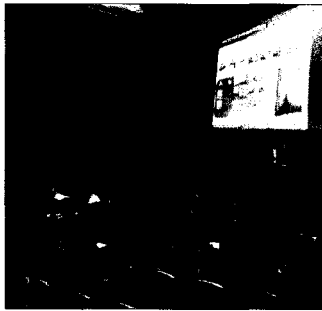




나눔과 캘리그래피 강병인의 재능기부, 두성종이의 공간기부로 이루어진 자선전시회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작품 판매수익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전액 국내 및 베트남 소외어린이를 돕기 위한 '잘 먹게 해 주세요'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홈페이지_ www.inthepaper.co.kr

어도비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월드 개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어도비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월드'를 개최했다. '어도비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월드'에는 방송 업계에 종사하는 프로듀서,



비디오 에디터, 디렉터, 비디오 엔지니어 약 1000여명이 참석해, 어도비가 제시하는 차세대 비디오 비즈니스 모델과 최근 주목 받고 있는 DSLR 비디오와 방송을 위한 어도비 솔루션, 그리고 해외 방송사의 성공적인 디지털 방송 운영 사례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세미나는 어도비시스템즈에서 비디오/오디오 제품 부문(다이내믹 미디어 부문)을 총괄하는 짐 제라드(Jim Guerard) 부사장의 차세대 비디오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는 기조 연설로 막을 열었다. 이어, 비디오 부분 전문가이자 어도비의 다이내믹 미디어 부문 이밴절리스트인 칼 솔레(Karl Soule)가 DSLR로 촬영한 디지털 비디오를 주목 받는 방식으로 편집하는 강력한 워크플로와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이 어도비 솔루션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과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했다. 한국어도비시스템즈 지준영 대표이사는 "어도비는 방송사 및 제작사들에게 날로 높아가는 시청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함으로써, 조직과 콘텐츠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과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홈페이지_ www.adobe.com/kr

어도비, 모바일용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 공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2월 14일부

터 17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1에서 열린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에 새롭게 추가된 안드로이드용 콘텐츠 뷰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콩드 나스트 퍼블리케이션즈와 마사 스투어트 리빙 오니미디어, 데니스 퍼블리싱 및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세계 굴지의 출판 기업들이 이 콘텐츠 뷰어를 이용해 모토롤라 줌을 포함, 곧 시장에 나올 다양한 안드로이드 태블릿 PC를 통해 자신들의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함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풍부하고 매력적인 읽기 경험을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어도비시스템즈의 크리에이티브와 인터랙티브 솔루션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와드화니(David Wadhvani) 수석 부사장은 "출판사들은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기술을 통해 수백만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잠재 구독자들에게 강력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들이야말로 출판 기업에게 수익 창출과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의 안드로이드용 콘텐츠 뷰어 기술은 안드로이드 2.2와 3.0 OS를 지원하며,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풍부한 시각 효과, 뛰어난 인터랙티브 오버레이(interactive overlays) 및 HTML5를 지원해 풍부한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뷰어를 통해 광범위한 지표 수집이 가능해,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심도있게 분석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용 콘텐츠 뷰어 기술은 지난 2월 15일부터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 사전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출판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국HP, 바이어스 랩이 선정한 6개 분야서 올해의 제품상 수상

한국 HP(대표 스티븐 길)는 사무기기 평가 전문기관인 '바이어스 랩 인터내셔널(Buyers. Laboratory, Inc)'이 선정한 '2011년 올해의 컬러 프린터 부문상을 포함, 총 6개 분야에서 '올해의 제품상(Pick of the Year)'을 수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술 서비스 산업 협회(TSIA)로부터도 '2010최우수 서비스 운영(ESO)'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컬러 출력 장비에 대한 바이어스 랩의 심층 평가에서 HP는 사무용급 잉크젯인 오피스젯과 대형 워크그룹 컬러 프린터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제품 부문에서 우수성이 입증되어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의 컬러 프린터 부문의 영예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HP는 바이어스 랩으로부터 제품 신뢰성, 경제성, 사용 편의성, 출력 품질, 그리고 생산성 등의 엄격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여 HP 프린터 및 복합기 6개 제품 레이저젯 프로 M1536dnf, HP 컬러 레이저젯 CP1525n, HP 디자인젯 Z6200 포토프린터 등에 대해서 '올해의 제품상'도 함께 수상했다.

한편, 바이어스랩 인터내셔널의 존 도넬리 지부장은 "바이어스랩은 엄격하고 공정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수상제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HP의 컬러 프린터 제품군들은 타사 제품대비 뛰어난 컬러 표현력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디자인, 쉽고 유용한 프린터 관리, 그리고 웹 젯 어드민(WebJet Admin)이나 컬러 액세스 컨트롤(Color Access Control) 과 같은 관리 기능으로 뛰어난 경제성까지 갖추어 올해의 컬러 프린터 부문 제품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고 수상선정 기준을 밝혔다.

한국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장 임진환 부사장은 "권위 있는 사무기기 평가기관인 바이어스랩과 기술 서비스 산업협회 TSIA 이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최근과 같이 경쟁이 심화되고, 소비자의 요구가 다변화하는 시점에서 HP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뛰어난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코닥, '신묘년 행복만들기' 온라인 이벤트 진행

한국코닥(대표 이수범)은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신묘년 행복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코닥온라인에서 인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200명에게 이색 체험관의 관람권을 무료로 증정했으며 무료로 4종의 관람권을 제공했다. '코코몽 녹색놀이터', '뽕뽕이 플레이뮤지엄'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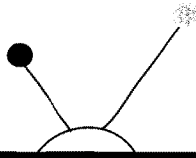
롯해 '별난 물건 박물관2', '롤링볼 어린이 박물관' 등의 전시회가 대상이었다. 한국코닥 소비자디지털사업부의 노용도 이사는 "코닥온라인 사진 인화 서비스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동시에 4가지 이색 체험관의 무료 관람권에 응모하여 신묘년 가정에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기획한 이벤트"라고 전했다. 한편, 코닥 온라인에서는 코닥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화, 포토북 사이트로 사진을 이용한 다양한 포토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출판 및 관련업계 뉴스

전자출판협회, 출판물 식별시스템을 이용한 출판물 보호 세미나 열어



전자출판협회는 지난 2월 21일 출판물 식별시스템을 이용한 출판물 보호기술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운영역 선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윤 연구원은 콘텐츠 보호 연구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며 현재 비교적 저 저작권 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는 비디오 및 오디오와 관련된 콘텐츠는 현재 필터링 형식으로 콘텐츠 보호가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보호 연구와 관련되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주 관심사였던 출판물의 불법 유통 경로에 대한 분석과 DRM을 통한 전자출판물의 보호, DRM이 해제될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개진에 이어 그 해답으로 출판물 식별 시스템을 이용한 필터링을 제시했다. 윤 연구원은 핑거시스템으로 불리는 DNA를 기반으로 하는 식별시스템으로 필터링을 하여 현재 개발이 완료



된 출판물 식별 시스템의 스펙 및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시연 시간에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텍스트 기반의 출판물 식별 시스템과 개발중에 있는 코믹 이미지 기반의 출판물 식별 시스템에 대한 데모영상을 상영했다. 끝으로 진행된 질의, 응답시간에 참가자들은 사전식별과 사후 식별의 효율성 및 식별의 실용성에 대해 질문했으며 윤 연구원은 사전 식별과 사후식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구매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출판도시, 2월 동네Book데이 행사 진행



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2월 26, 27일 이틀 동안 2월 동네Book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사, 길벗어린이, 다락원, 민음사, 박영사, 시공사, 파주출판도시 책방, 헌책방 박물관 등 10여개 출판사가 참여했으며 문화강좌, 공연 활동, 체험활동 및 북아웃렛 등 작지만 알찬 행사들을 진행했다.

동네Book데이는 출판도시에서 시골 밥상같은 정겨움이 묻어나는 동네잔치를 지향하며 기획된 행사로, 매월 넷째주 주말에 진행되고 있다. 작가 초청 대화, 소극장 공연을 비롯, 작지만 자발적이고 흥겨운 행사들이 자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1인출판사 출판지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1인 출판사의 안정적 경영 도모와 국내 출판시장 활성화를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등을 위해 1인출판사 출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1편당 출판지원금 500만 원씩 20편에 지원해 총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1인출판사(발행인 1인 출판사부터 정규직원 2명 이내 고용한 출판사까지 해당)여야 하

며, 모회사 성격 출판사의 임프린트 또는 자회사, 계열사는 제외된다.

위원회 홈페이지(www.kpec.or.kr)에 실명 확인 절차를 마치고 등재된 양식에 관련 사항을 직접 입력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오는 4월 29일까지로 우편으로 제출할 시 마감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지원하는 출판원고는 지식문화발전과 국민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원고, 국민 독서문화 확산 및 독서생활화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 출판문화 발전과 출판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 기타 내용의 우수성, 독창성 및 시의성이 있거나 사업 목적에 적합한 원고 등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 대상 원고(동화책, 그림도서 등), 문학원고(시, 소설, 에세이, 희곡, 평론 등), 외국 도서 번역 원고, 대학교재 또는 부교재 등은 불가능하다. 심사결과 발표는 2011년 5월에, 출판지원금 지급은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지뉴스

한솔그룹,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펼쳐



한솔그룹(대표 권교택)은 최근 신입사원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연탄배달과 급식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채용된 한솔그룹 신입사원 95명은 강원도 원주에서 빈곤층 주민 자활지원 봉사단체인 '밥상공동체'와 함께 고지대에 사는 독거노인을 찾아 연탄을 배달했다. 또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폈다.

한편, 한솔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솔제지는 임직원 봉사단인 '한솔나누미'를 중심으로 독거노인 복지관과 장애인보호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항, 대전 공장 등 각 지역 사업장별로 임직원 급여액 중 일부를 출연해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가장을 돕는 '사랑의 1% 나눔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한솔제지, 올해 목표 '고객중시 경영 통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선정

한솔제지(대표 권교택)는 2011년을 '고객중시 경영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의 해로 정하고, 고객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고객가치 창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솔제지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고객가치창출 T/F 팀을 대표이사 직속의 정식팀으로 전환해 인쇄전문가, 에너지/설비 전문가, PI(Process Innovation) 전문가 등 박사급 인원까지 포함해 대폭적으로 팀을 확대 개편했다.

고객가치창출팀은 인쇄기술 분야 및 인쇄기 진단 서비스, 에너지/설비 최적화 지원 서비스, 영업활동 및 경영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 전반에 관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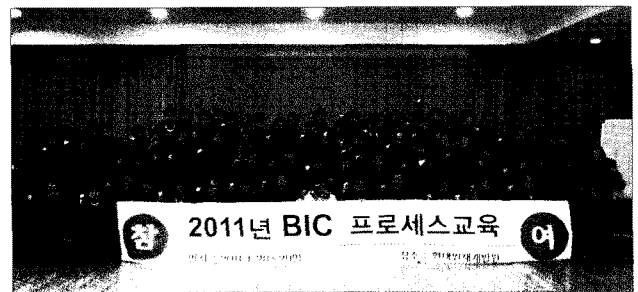
한솔제지, 대표에 권교택씨 발령

한솔그룹은 지난 1월 28일 "오규현 대표가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에 권교택 대표를 전보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권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 고려병원(현 강북삼성병원) 재무파트와 한솔홈데코 경영지원 파트를 거친 재무·관리 분야 전문가다. 권교택 대표는 아트원제지 대표이사도 겸임하게 된다. 권 대표의 자리 이동으로 공석이 된 한솔케미칼 대표이사에는 박원환 경영지원본부장을 승진, 발령했다. 한솔그룹은 아울러 한솔제지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재우 한솔PNS 패키징부문 대표를 한솔제



지·아트원제지 인쇄용지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제지 BIC(Best In Class) 집체교육 실시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BIC의 사상 및 추진 Process, 방법을 이해하고 변화 추진 리더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BIC 집체교육을 지난 1월 28, 29일 이틀간 경기도 용인의 현대인재개발원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관계회사 BIC 추진팀원 68명이 참가하였으며, 보다 조직적이고 업그레이드 된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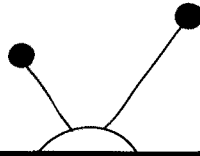
경영조정실은 이번 BIC 집체교육 이후 회사별, 분야별 특화된 교육 과정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으로 BIC 추진팀원 이외 전 임직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제지, TESAT 도입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종업원의 역량향상 및 경쟁력 배가를 위해 승진시 TESAT 등급 취득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TESAT은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경제 지력 '사고력 테스트'로 시장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마인드를 향상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시험이다.

그 동안은 글로벌 그룹 또는 금융기관에서만 채용과 승진시 도입하였으나, 제지업계에서는 한국제지가 최초로 도입했다. 8개월 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9월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제지 온산공장은 올해 2월부터 제3기 펄프제지기능사 자격증반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펄프제지기능사 자격증반은 총 69명이 신청하여 높은 학구열을 반영하였으며, 생산 및 기술 연구소 강사들의 적극



를 높은 강의를 통해 전원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년간에 걸쳐 총 105명이 필프제지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플라, 제지 관련 산업체를 위한 신제품 발표

플라는 제지 관련업계를 겨냥한 픽스택(PickStack) 리스택킹 스테이션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초부터 플라 고객 센터는 포장되지 않은 용지를 다루는데 필요한 리스택킹 스테이션을 선보이고 있다. 픽스택은 자동으로 포장되지 않은 용지를 정확한 양으로 쌓을 수 있으며 이 신제품은 쉽게 오프셋 최대 규격 750×1050 mm (1개 제품인 경우) 혹은 750×525 mm (2가지 제품인 경우)을 다시 쌓을 수 있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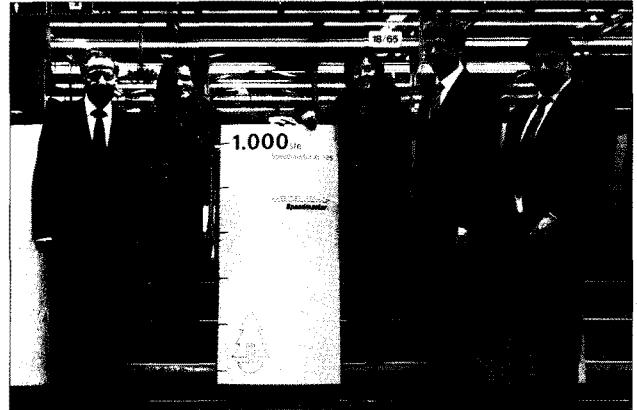
플라는 매우 작고 빠르게 작동하는 리스택킹 스테이션을 개발, 이 제품은 2가지 제품을 동시에 분리할 수도 있다. 칩 마커를 사용하여 용지의 정해진 양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으며 특별한 홀드 다운 클램프로 430×430mm까지 작은 규격이나 미끄러운 용지도 정확하게 취급할 수 있다. 리스택킹 스테이션은 인쇄인들이 필요한 양만큼 주문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한 응답이며 그런 배경으로 픽스택은 인쇄기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리스택킹 품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림, 2010 우수협력업체 시상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신사동 본사 리프레시룸에서 2010년도 우수협력업체에 대해 시상했다. 무림은 오랜 기간 무림P&P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우수한 품질과 서비스로 우드칩을 공급해 준 '풍림'과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안정적인 수입칩 공급을 약속한 일본의 '이토추 상사', 무림SP의 전기자재 및 자동제어장치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전기'의 3개 업체를 선정,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김인중사장은 감사패와 함께 부상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무림과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부탁했다. 한 해 동안 무림과의 협력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업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무림의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은 매년 시행되고 있다.

해외뉴스

하이델베르크, 1000번째 스피드마스터 XL 105 판매



하이델베르크는 유럽의 선도적 인쇄사 중 하나인 colordruck사로부터 스피드마스터 XL 105 인쇄기 3대를 주문받음으로써 1000번째 스피드마스터 XL105를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colordruck사는 드루파 2004에서 XL 105가 소개된 후 처음 설치한 회사들 중 한 곳이며 현장에서 성공이 바로 입증되어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XL 105는 그 전 인쇄기와 비교하여 30%까지 생산성을 증가시켜 colordruck사는 2대의 같은 인쇄기를 이어 주문한 바 있다. 새롭게 발주한 인쇄기에는 완전 자동의 동시 판 교환장치인 AutoPlate XL, 인라인 칼라 측정 및 콘트롤 시스템인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과 완전 자동 논스톱 시스템을 장착한 종합적 로지스틱스 워크플로 등을 갖추게 된다. 스피드마스터 XL 105는 875mm까지 상승시키고 코팅유닛을 장착한다. 1000번째 기계는 올해 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colordruck사의 Herbert Klumpp사장은 “같은 디자인의 인쇄기 3대를 사용하는 것은 유연성을 최대로 올린다”며 “새로운 자동 논스톱 배지부는 생산성과 자동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파일의 품질도 뛰어나며 논스톱 파일 교환으로 사용자의 작업이 필요 없어 작업자는 다른 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생산 책임자 Martin Bruttel씨는 3대의 인쇄기는 1대당 이산화탄소 263(m/t)을 절감시키도록 한다며 “항상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스피드마스터 XL 105는 그에 대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은 작업준비시간과 손지를 절감하며, 인쇄기의 새로운 건조장치는 에너지 소비를 45%까지 줄인다. 수서코팅 또한 환경친화적 작업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겨울 학교 태국에서 개최



하이델베르크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는 하이델베르크 태국 지사와 함께 오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방콕에서 차기 겨울학교 2011을 개최한다. Shangri-La Hotel에서 열리는 4일 집중 세미나 프로그램은 전 세계 인쇄인의 참여를 위해 계획되었으며 지식을 넓히고 경험을 공유하며 성공의 전략을 고민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하이델베르크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국제 비즈니스 트레이닝 총 책임자인 마티나 브랜드(Martina Brand)씨는 "경쟁의 압력과 시장의 변화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쇄 매체 산업 내 관리자들은 항상 산업의 최신 경향과 함께 전략적 관리의 종합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 배경에서 세미나는 특히 비즈니스 관리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심층적 발표와 토론 및 고객 현장 방문은 금융, 리드십 및 마케팅과 관리 등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줄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겨울 학교는 인쇄 매체 산업 내 중요한 국제적 포럼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경영자들은 경험을 나누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갖게 된다. 최신 세미나 정보 및 강사 소개는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된다.

코닥, Hunkeler Innovation Days 2011에서 새 솔루션 및 개선책 발표

코닥은 스위스의 Lucerne에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린 Hunkeler Innovation Days 2011에서 PROSPER 플랫폼을 추

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KODAK PROSPER S20 임프린팅 시스템은 성공적인 PROSPER S 시리즈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며 새로운 PROSPER S20 Imprinting System은 잡지, 신문, 상업용 삽입광고 제작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웹 오프셋 프레스에 걸맞는 스피드를 갖고 있다. KODAK Stream 잉크젯 테크놀로지에 의해 작동하는 PROSPER S20 임프린팅 시스템은 4.16 인치 임프린팅 폭과 함께 해상도 600 × 300dpi에서 최고 속도 2000 fpm (600mpm)를 낼 수 있다. 이 솔루션은 또한 PROSPER S10 임프린팅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도 가능하다.

KODAK VERSAMARK VL6200 프린팅시스템은 고품질, 고속 장비로 유연한 드롭 인 디맨드 (Drop on Demand) 잉크젯 프린팅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최대 150ppm 속도로 작동한다. VL-시리즈는 업무상 서류와 다이렉트 메일과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다루기에 문제가 없다. 거기에 2011년에 제조된 VL-시리즈는 이미징 시스템에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있다. 생산, 컬러, 데이터와 같은 중요 비즈니스 요소를 통합한 Kodak의 통합 워크플로 솔루션도 선보였다. KODAK INSITE Storefront System은 사용자들이 그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 효율성 증가, 사이클 타임 감소, 비용을 낮추며 KODAK PRINERGY 디지털 워크플로는 특별히 워크플로 자동화의 수준급으로 디지털 프린터와 디지털 프레스를 관리하고 작동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나 이상의 디지털 워크플로 시스템을 갖고 있는 프린트 서비스 제공업자들을 위해 PRINERGY 디지털워크플로는 하나의 통합된 JDF를 기반으로 한 워크플로와 함께 디지털 프린터와 프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제공한다.

Kodak, EAMER지사의 비즈니스 매니저 겸 VP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매니저인 Mark Clark는 "여전히 Hunkeler Innovation Days는 대표들에게 최근의 프린트 혁명이 어떻게 그들의 비즈니스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은 특히 새로운 NEXPRESS SX 프레스와 VERSAMARK VL6200 프린팅 시스템에 감동받았고 이 시스템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조해내고 수익성을 올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